

## 私(イ・エスル)のIECへの入学までの準備と入学後現在までの軌跡

제가 처음 IEC에 온 것은 3월에 있는 입학식을 위해서였습니다.

관광으로 두 세 번을 가던 일본이지만, 장기 체류는 처음인 탓에 일본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실수도 많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본어가 맞는지 확신이 없었고, 길을 물어볼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학식이 시작되어도 마음이 진정되기는 커녕 누가 나에게 말을 걸어 올 때 어떤말을 주고 받아야 할지 정말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렇게 입학식을 마치고 난 후 저는 얇은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나름 일본에 대해 잘 알고있다고 생각했는데, 일본어는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자신이 한심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다른 신입생들과는 다르게 본교에서 매일 1시간 씩 자기 수준에 맞는 일본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어로 일본어를 배운다고 생각하니 머릿속은 온통 두려움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이해하기 힘든 한국어도 있듯이, 일본어도 일본 문화, 일본만의 특색을 가진 단어, 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학기가 시작하고 나서는 항상 아침에 하던 일본어 수업은 수업이 모두 끝난 방과 후에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수업 방식은 문제집을 풀고, 읽고, 독해는 이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듣는 것에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었던 터라 한자를 읽는 것을 중점적으로 읽기, 독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모의 시험을 치르곤 했습니다.

저는 JLPT 2급에 점수가 불충분하여 처음에는 일본에 관광 비자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일 관광 비자는 3개월(90일) 밖에 체류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3개월에 한 번, 혹은, 휴일 마다 잠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3월 중순 즈음에 일본으로 와 5월에 있는 골든 위크에 한번 돌아가고, 7월에 일본어 능력 시험(JLPT)을 보기 위해 한국에 잠시 동안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7월에 본 시험은 정말 믿을 수 없이 점수가 좋았습니다. 제가 처음 일본어 시험에서 떨어진 이유는 총 점수는 충분히 합격점을 받았지만, 독해가 기본 점수에 미치지 못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본 시험은 독해가 40점으로 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렇게 9월 시험 합격의 소식을 듣고, 당시 여름 방학이라 한국에 돌아갔던 저는 서둘러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본에서도 비자 변경이 가능한 것을 알고, 필요한 서류를 굳이 한국에서 준비해서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하고, 10월 31일에 드디어 학생 비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비자 유효 기간은 1년 3개월이었습니다. 비자를 받고 바로 1학기 때의 성적이 인수되었고, 저는 일반 학생들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일본어 실력이 뛰어나다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현재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 보다는 빠르게 일본어를 습득했다가는 생각합니다. 항상 일본어를 말하고, 듣고, 쓰고, 읽고, 접합니다. 수업 중이 아니더라도, 일상 생활에는 항상 일본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말로 일본어를 배우면 이해를 빨리,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어로 일본어를 배우게 된다면 이해하는 속도는 약간 느릴 수도 있지만, 문화, 생각 방식 등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